

이덕일의 ‘역사의 창’



‘도둑춘’

명(明) 나라 왕세정(王世貞)의 ‘술해년 에 들은 것이 있어 우연히 시 한 수를 짓다’(戊亥之際有聞偶成一首)라는 시에 ‘호보리에 벼슬아치 얼마나 많은가? 문장은 아랑왕과 같네’(寇蓋幾多狐父里 文章若 偃夜郎王)라는 구절이 있다. 호보(狐父)는 도적이 호보리(狐父里)는 도둑들이 사는 도둑춘을 말한다. ‘여씨춘추’(呂氏春秋) ‘개립’(介立)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선비가 굶어죽기 직전에 호보리의 도적이 주는 밥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가 도적의 음식임을 알고 토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다. 아랑왕은 한(漢)나라 때 중국 남부의 작은 야랑국(夜郎國) 왕인데, 자신을 한나라 임금과 비기면서 빼졌다는 인물이다. 능력도 없는 자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과 문장으로 세상을 호도하는 것을 비유한다.

임금의 개인 재산을 내탕금(內帑金) 또는 내탕고(內帑庫)라고 했다. 이 내탕금은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내놓는 재산이었다. 강화도령이라고 알려졌던 철종은 재위 13년(1862) “백성들의 형편이 애 통하고 나라의 회계가 거덜 난 것이 지금

처럼 심한 때가 없었다”면서 내탕전(內帑錢) 5만 냥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정조는 재위 17년(1793) 삼남 지방에 기근이 들자 내탕금 4000민(緡)과 호초(胡椒) 500근을 삼남 감사에게 나누어 주어 진휼에 보태게 했다. 정조는 내탕금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재위 18년(1794) 임금의 특명으로 치른 과거인 응제(應製)에 합격한 유생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내탕고의 쌀 30포와 100민(緡)을 성균관에 내려서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한편 당파가 바뀔 때마다 많은 신하들을 죽였던 숙종도 여러 차례 내탕금을 내려서 백성들의 곤궁함을 살폈다. 숙종은 재위 39년(1713) 경기와 충청도에 흉년이 들자 은 1천 냥을 충청도에 내리고, 8백 냥을 경기도에 내리면서 “내가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을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있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말했다.

임금이라고 자기 개인 재산이 아깝지 않을 리는 없지만 백성이 가난한데 임금만 부유할 수 없다는 통치 철학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논어’ ‘안연’(顏淵) 편에는 지금의 산둥반도에 있던 노(魯)나라 애공(哀公)과 공자의 제자 유약(有若)이 세금을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나온다.

애공이 유약에게 흉년 때문에 나라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당시 노나라는 세금으로 10분의 2를 거뒀는데 유약은 거꾸로 10분의 1을 걷는 첩법(徹法)을 쓰라고 권유했다. 애공이 10분의 2를 거두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첩법을 쓰겠느냐고 불평하자 유약은 “백성이 풍족한데 임금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시겠습니까?”(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不足)라고 말해 주었다. 백성들이 가난한데 임금 혼자 부유할 수 없고, 백성들이 부유한데 임금 혼자 가난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서 임금의 정치란 천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란 뜻이다.

지금 이 나라는 거꾸로 대통령과 그 비선 실세 및 측근들만 부유하고 대다수 백성들은 ‘헬조선’에 신음하고 있다. 이 나

라 반만년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거꾸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위나 맺어서 극우로 치닫는 일본이 유사시 이 땅에 진출할 빌미나 제공하고 있다.

광해군 6년(1614) 좌의정 정인홍은 “안에 의관(衣冠)을 입은 도둑이 있는 뒤에야 밖으로 간戈(干戈)의 침범이 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의관을 입은 도둑’은 부패한 벼슬아치를 뜻하고 ‘간戈의 침범’이란 외적의 침략을 뜻한다. 이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은 도둑춘이라 불라도 과언이 아닐 현 정권 핵심부라고 지칭해도 부인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간 전가의 보도처럼 써 먹던 ‘나라’를 위해서 그만 내려오시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조 세 원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부분부장

어느새 겨울에 다가서 있다. ‘노루 꼬리 만큼 짧다’는 가을이 확실히 지나가는 소리도 들린다. 해마다 이때쯤에는 연초 새웠던 계획들이 마음먹은 대로 실천에 옮겨졌는지 점검해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실망이 분노로 이어져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나라 국민이 되었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들린다. 모든 것들이 맘의 결실로 가득 차야 할 시기에 허탈감과 무기력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런 패일수록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건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아직 자기 건강상태가 어떤지 점검해보지 못 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 건강관리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 위험인자를 미리 찾아내 질병

한해 마무리는 건강검진으로

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충실히 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성질환의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음주나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 비만이나 질병의 과거력과 가족력 같은 것들은 건강위험요소라고 하며, 이런 것들이 질병은 아니지만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그리고 암 등의 발생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건강위험요소를 나열해 보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별이나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선택해서 정기적인 검진 계획을 꼼꼼히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국가건강검진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다. 그 이용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진과, 암 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장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을 아직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받는 건강검진은 평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러 병원에 가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 건강검진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들도 검사 항목이 다양화되고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들은 개개인의 성별이나 연령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검사를 받은 검진기관이나 병원에 가서 자기의 건강위험요소가 되는 부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를 보완해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대체로 연령대별로는 이런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주기는 20~30대라면 1~3년에 한번은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40대는 2년에 한번,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40대부터는 고혈압,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하므로 1~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40~50대가 되면 일단 체력이 제법 떨어지고 몸 곳곳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다. 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함께 암 검진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

이기도 하다.

특히 50대부터는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전립선암과 대장암을 포함해서 받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전후 골다공증예방 및 조골치료를 위한 골밀도검사와 권장된다.

60세 이상 노년기에는 근력저하, 평형감각저하, 인지능력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검진이나 암 검진 외에도 중장년기의 정도에 따라서 체력측정이나 인지기능측정, 영양평가 같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체지방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신체적, 정신적 노화와 함께 치매, 퇴행성관절염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1년에 한번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본인에 맞는 즉 본인이 알고 있는 질병과 관련 합병증을 예방한다든지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검진이 권장된다.

매년 연초에 작심을 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올 한해 마무리는 건강검진과 더불어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이나 잘못된 행태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격언이 있다. 올 한해 마무리로 자기 건강상태가 어떤지 체크해보면 어떻게,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길 소망한다.

기 고

제2의 4·19민주혁명을 바란다



이 병 열
4·19민주혁명 기념사업회장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반성도 혁신도 할 수 없으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그 일가와 인맥, 동조자의 부정부패로 빚어진 혼란으로 발각 뒤흔쳐 있다.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지속적인 촛불집회로 불의에 항거하며 지금까지 최순실에게 조종 당한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국상황은 1960년 4·19혁명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와 독재에 맞서 쫓겨했던 민주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초석을 이룩한 역사다. 헌법전문에는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국가의 근간으로 명기하고 있다.

1960년 4·19혁명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에 동조한 시민들이 연합해 전개됐다. 종신집권을 노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욕과 독재가 낳은 자유당의 부정부패 정치는 국민들의 불만을 누적시켜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4·19혁명의 직접적 원인은 1960년 3월 15일 제 4, 5대 정부통령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도화선이다. 당일 오후 12시 45분에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과 학생, 민주당원 1200여 명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주의 장송’ 데모를 진행했다. 이들은 전남도청으로 향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 유혈이 난자한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마산에서는 오후 3시 40분경과 7시경 1, 2차 부정선거 항의시위가 있었다. 이 때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이 행방명명됐고, 그의 주검은 26일이 지난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처참하게 발견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 학생들과 국민들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질서정연한 시위를 하고 귀가하던 중 종로4가에서 50~60명의 정치깡패 기습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 사건과 김주열 학생의 비참한 죽

음으로 전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폭발적인 상황이 됐다. 다음날인 4월 19일에는 국민의 분노가 결국 폭발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 4·19혁명의 불꽃이 타올랐다.

서울에서는 수 천명의 학생과 시민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해 “이승만은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였고, 오후 1시에는 서울 일대에 경비계엄령이 선포됐다. 오후 4시에는 부산·대구·광주 등 모두 4개 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1시간 뒤에는 비상계엄으로 바뀌면서 경무대 앞에서의 발포로 시작된 시민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 186명의 사망자와 6259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교의 교수 300여 명의 시위는 계엄하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평화적 시위로, 정부의 마지막 단안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일격이었다. 4월 26일 오전 10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 12년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린 것이다. 4·19혁명의 여운은 이기붕 일 가족의 자살과 이승만 대통령의 망명으로 이어졌다.

현재 불의에 항거하는 시국상황은 4·19혁명 당시 상황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

이다. 최순실이 행한 청탁들과 비리는 관련 인물들의 수사과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인사청탁, 국가기밀 누설 등 권력과 돈으로 사회 정의마저 무너뜨렸다. 최씨에게 조종 당한 대통령은 국가가 위임한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고, 그 책임과 의무를 방관했다. 속속 밝혀지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다 못해 역장이 무너져 거리로 뒤흔쳐나왔다. 국정수습의 길은 촛불을 밝혀 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듯 수용하는 데 있다.

시위문화는 4·19민주혁명 당시 보다 더 성숙돼 평화시위로 정착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퇴진 촛불시위에도 지금의 분위기는 4·19당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버티기로 방향을 잡고 촛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4·19민주혁명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계승한 국민의 촛불시위를 정부는 평화적이고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4·19당시 국민들의 치열한 희생과 죽음, 대통령의 망명, 부통령 가족의 자살 등 참담함으로 사태가 수습돼서는 절대 안 된다. 성숙한 국민의식이 국제사회에 빛을 발하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 탄생하길 기원한다.

社 說

법무장관 등 사의 표명 정권 붕괴 신호탄인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어제 두 사람의 사의 표명 사실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 직후 ‘최순실 특검법’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현 정권과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최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더 충격적이다.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데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것 같다. 그보다는 후배들의 신망을 받던 이들이 법률가로서 더 이상 대통령을 두둔하는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은 검찰 라인인 핵심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한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동시 사임은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정국을 이기지 못하고 청와대 내부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 유지의 두 축이 이탈하면서 국무위원들의 도미노식 사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질 경우 눈치만 보던 청와대 수석들이 출구 전략 모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상가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대선 출마 포기 선언과 함께 대통령 탄핵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인천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내부 계사판을 통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권을 받치고 있는 공무원들의 반발은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도. 촛불에서 시작된 민심이 반이 이제는 공식사회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당 개관 1년… ‘잃어버린 예산’ 되찾아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내일(25일)로 개관 1주년을 맞는다. 문화전당은 지난 1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약 가능성을 확인했다. 개관 1년간 방문 관람객이 무려 260 만 명에 달하는 등 국내외 주목을 받은 게 이를 방증한다. 21일 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개관 이래 기획·상설공연, 창·제작공연 등에만 모두 55만 명이 찾는 등 관람객이 총 260여 만 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문화전당이 표방해 온 ‘아시아 문화의 창(窓)’으로서 역할도 두드러졌다.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와 아시아 무용단을 초청하고 아시아의 신화 등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사업 등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인디라간디국립예술센터 등 아시아 문화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종 전시와 축제를 열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당은 여전히 100% 가동되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있다.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원원이 광주 향정 관련 흔적 복원 논란으로 1년째 표류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비선 라인에 의해 출범된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밀려 삭감된 문화전당의 예산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더군다나 최순실의 국정 농단 실체가 드러나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내년 예산 1278억 원이 삭감된 이후 최근 이경현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 가운데 수백억원을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러한 ‘민선 예산’을 다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전당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창조융합벨트로 인해 ‘잃어버린 예산’을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순천에 있는 작은 서점 ‘그냥과 보통’에 들렀을 때 탁자 위에 놓인 책 한권이 눈에 들어왔다. ‘녹색평론’(2016년 3~4월, 통권 147호)이었다. 올해로 창간 25주년을 맞은 녹색평론. 오랜만에 봤던 재생지와 녹색 숫자 등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책 표지에 적힌 목차를 읽어 본다. ‘세월호 2년, 책임도 위로도 없었다’, ‘오직 시민들만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다.’

책 옆에 놓인 스프링 노트엔 ‘녹색평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아주 잘 쓴 글씨체는 아니지만 한자 한 자 정성이 엿보였다. 출판가에는 ‘어였다. 책을 옮겨 적었을 필기구 볼펜도 함께 놓여 있었다.

주인장 설명을 들으니 서점에서 운영한 ‘필사’ 강좌 수강생의 성과를 전시한 것이라 했다. 책상에는 한 강의 ‘월’, 이병철의 ‘내 옆에 있는 사람’ 등의 필사본과 원작도 놓여 있다. 특이하게 구창모의 ‘희나리’ 등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수십 편 필사한 이도 있었는데 필사씨는 각양각색이었다. 진지하게 필을 올렸던 시 한 편부터 옮겨 쓰는 걸이 적힌 사진들도 보였다. 동행한 이는 ‘논어’와 ‘백서 시집’을 필사하다 중지

했는데 다시 해야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보성 태백산맥문학관에 ‘태백산맥’(전 10권) 필사본 18점이 전시돼 있다. 올해 출간 30주년을 맞은 ‘태백산맥’은 200자 원고지 1만6500매나 되는 분량이다. 필사본은 20대 학생부터 80대 할머니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에 걸쳐 완성한 결과물이다. 첫 기증자는 조정래 작가의 아들이었다. 최근에는 보성군청 직원들도 릴레이 필사에 참여했다.

몇 년 전부터 글을 배껴 쓰는 필사(筆寫)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출판가에는 ‘어린왕자’, ‘데미안’ 등 고전 배껴 쓰기 라이팅북도 많이 나와 있다. 서점에 함께 방문한 이는 조정국 씨가 쓴 ‘필사의 기초’(유유 간)를 읽고 필사를 시작했다. 진주에서 ‘소소책방’을 운영하는 저자는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 차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점을 필사의 즐거움으로 꼽았다.

‘욕심부리지 말고 자투리 시간에 낚서 하듯’ 시작해 보라는 저자의 말처럼 마음을 울렸던 시 한 편부터 옮겨 쓰는 걸로 소박한 출발을 삼아도 좋을 듯하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국문내 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